

교과서시대

1968年 11月 15日

월 2 회

믿을 만한 역사적 연대를
알려 주는 책

1975년, 왜 당신은
그 해를 기대하는가?

제 1 세기에 있었던 사건들의
연대를 20 세기에 계산하는 방법

여호와의 天國宣布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이사야 43:12

每月一冊 全年十二冊 西曆一九五三年六月二十九日 第三卷 第九期 創刊號
一九五三年六月二十九日 第三卷 第九期 創刊號

이름...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
를 원하노라. 고린도 전서 4:8 과 4:14 一五
일 16 ★八월(일) 유순한 대담은 분노를 쉬게 하

印發編 曆年日月 西曆一九五二年九月一日
編行機 人東亞 出 版 社 金 相 文 館

「파수대」의 목적

파수대마다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수대는 예리한 시력을 가진 활짝 깨어 있는 사람에게 높은 장소로서 이바지합니다. 그 때문에, 그는 파수군으로서 먼 앞을 내다보고, 다가오는 일이 대비해 할 위험한 일인가 혹은 견고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해야 할 일인가를 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 줄 수 있습니다.

「파수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잡지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똑 같은 유용한 봉사를 공평히 해야 합니다. 본 잡지는 국제적인 잡지로서 민족적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모두가 세계의 공통적인 위험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 모두가 공통적인 선을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파수대」가 1879년 7월에 (영문으로) 출판되기 시작한 이래로, 장래를 내다보아 왔으며, 독자들이 지식에 있어서 발전하며, 의로운 인류를 위해서 보존된 영광스러운 새로운 사물의 질서에 관한 한층 명백한 환상을 얻도록 돕기 위하여 늘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파수대」가 영감받은 예언 잡지는 아니나, 지친한 길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잡지의 내용은 그 예언서와 대조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나라에는 서로 다른 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잡지가 어느 것을 대표합니까? 기독교국의 혼합한 종교들이 아니라,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거룩한 책의 종교입니다. 어느 책입니까? 성구들이 있는 성서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 즉 홀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감을 받아 기록된 책입니다.

「파수대」의 거룩하며 비정치적인 목적은, 따라서, 성서의 연구를 격려하며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참 종교와 절대 불과오한 그 예언서를 이해하도록, 우리의 많은 독자들에게 필요한 비종파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잡지는 독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운 왕국 하에 있는 그의 약속하신 새로운 질서에서의 완전한 생명과 행복의 진가를 시험해 보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國際版發行人

WATCH 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PENNSYLVANIA

117 Adams Street

Brooklyn, N.Y. 11201, U.S.A.

N.H. KNORR, *President*

GRANT SUITER, *Secretary*

“그들이 모두 여호와께 가르치심을 받을 것이다.”—요한 6:45, 이사야 54:13, 신세.

目次

미부지 말라: 지금 하라	507
당신의 책을 읽어 보았는가?	508
믿을 만한 역사적 연대를 알려 주는 책	510
1975년, 왜 당신은 그 해를 기대하는가?	515
제1세기에 있었던 사건들의 연대물	
20세기에 계산하는 방법	522
일용할 성귀	528

今號 印刷部數 5,400,000 1部 10원

「파수대」는 下記 72個 言語로 發行됨

月 2 回 發行

노르웨이語	스페인語	이태리語	드위語
덴마크語	슬로베니아語	일본어	포르투갈語
독일語	시소냐語	한국어	핀란드語
말라가시語	세넬語	중국어	한국어
불란서語	신안자語	중국어	화판語
세부아노語	아라비아語	코사語	희랍語
시소로語	아프리카語	대만어	힐리가이논語
스웨덴語	북		

月 1 回 發行

가	벨갈語	쓰화나語	터미語
가나에스語	비틀語	실로지語	티어키語
근	사마르-	아르메니아語	동부카語
러시아語	레이데語	아이슬란드語	파피아멘토語
일가라語	사모아語	에세語	방판고語
마라티語	상고語	요르마語	견가시안語
말타어語	상	우두두語	몰란드語
멜라네산-	세르비아語	우크라이나語	피이지語
피진語	세이론語	이바난語	함가리語
오우語	세페디語	코모리아語	히브리語
에어어	스와힐리語	키봉고語	힌두語

「파수대」에서 사용하는 성서 번역은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이다. 그 외의 성서 번역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약호가 성귀 밑에 표시되어 있다.

- 신세—신세계역 성경(영문)
- 미포—미국표준역(영문)
- 홍정—제임스왕역(1611)(영문)
- 듀웨이—가톨릭 듀웨이역(영문)

발행처: 韓國 서울 西大門 郵遞局 私書館 第7號 對峙口街 200원

美國 117 Adams St., Brooklyn, N.Y. 11201, U.S.A. \$1

하와이 1228 Pensacola St., Honolulu, Hawaii 96814 \$1

日本 5-5-8 Mita, Minato-Ku, Tokyo, Japan 400 圓

月 1 回 發行 「파수대」는 위의 半額 送料은 完全한 送料規定에 依하여 當신의 나라에 있는 事務所로 보내주십시오. 豫約滿期通知는 적어도 1個月 전에 보내드리게 됩니다.

住所變更는 發行者기 30日 前에 本協會로 알려 주셔야 합니다. 住所變更를 通知하실 때는 舊住所와 新住所를 함께 알려 주십시오. (될 수 있는 대로 정지 封봉에 인쇄된 當신의 舊住所를 오려 보내 주십시오.)
 通知할 處: 韓國 서울 西大門 郵遞局 私書館 第7號
 發行者 塔樓 聖書 冊子 協會

Second-class postage paid at Brooklyn, N.Y. Printed in Korea
 The WATCHTOWER semimonthly Vol. LXXXIX, No. 22
 KOREAN EDITION NOVEMBER 15, 1968

신이 그에게 해주려고 계획한 선한 일 행하기
를 미루는 습관을 가지지 말 것이다. 한 남편
은 갑자기 아내를 사별하고 애기 둘을 기르게
되었다. 그는 그가 과거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으나, 지금에 와서 보니, 자기 부인이 엄
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착했는가를 부인에게
말해주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고백
하였다. 그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교훈을 얻
을 수 있다! 인생이 무상함으로 이루어 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결정할 일을 지
금 하여야 하며, 연기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계획한 것을 미루는 일을 피하기 위
하여 경제해야 할 한 가지는, 무 공을 드러서
해야지만 우리의 감정을 표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우리
의 훌륭한 욕망을 이행하는 일을 미루게 된
다. 특별하게 하려고 계획한다면, 소기의 목적
을 달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왜? 별로 대단
치 않은 조그만 문제들이 일어난 때, 이러한 문
제들을 먼저 처리하고, 더 복잡한 결정은 다
음으로 연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책과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가운데는, 무엇을 잃어 버릴 때
가서야 비로소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이들은 그들의 선한 의도를 계속 연기만 하다
가, 상대방이 갑자기 죽어 버린 경우도 있다.
그들은 과거에 할 수 있었지만 하지 못하였다
는 생각으로 괴로움을 받는다. 이제 와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그러한 경
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렇다, 그러한 사
람들은 변화를 받아, 앞으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다. 지난 날에 이

행하지 못한 결심으로 괴로워하는 대신, 제
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에게 선을 행해야 할 기회를 이용할 것이다.
여기의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기회
가 있는 때인 지금, 우리는 계획한 선한 일을
하여야 한다. 물론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러
나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한 딸은 현명하게도, 자기의 고상한 욕망을
재빨리 실천하였다. 그는 부모에게 다음과 같
은 편지를 보냈다. 「아버님, 어머니전 상서... 이
제 「과수대」 연구는 대단히 유익했어요. 그
연구를 통하여, 저는 다시 한번 저의 어린 시
절을 회상하고, 저를 정제와 여호와의 권위있
는 충고로 양육해 주신 훌륭한 아버지, 어머
님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였
어요. 아버지, 어머니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커감에 따라 점점 더 감사하는 마음도
커지는군요.」 그 부모는 얼마나 기뻐했을 것
인가! 당신의 사랑하는 부모에게 당신이 부
모님의 은혜를 대단히 감사하고 있음을 서슴
치 않고 알리는 것은 얼마나 사려깊고 현명한
일인가! 당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헌
신과 희생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를 지금
부모에게 알려도록 하라.

우리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위하여, 우리는 미루려는 경향, 특
히 그 일이 유익하고 선한 일일 때, 그 일을 미
루려는 경향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
한 하나님의 말씀은 명심하면, 격려가 될 것이
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반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잠언
37)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친절할 일을 하고
자 결심했는가? 미루지 말라, 지금 하라!

당신의 책을 읽어보았는가?

『무슨 책을?』이라고 질문하실
분이 계시겠습니다. 「하나

님의 아들들의 자유 가운데서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독자 대
부분이 한국에서 이 책을 받은 지
가 벌써 3개월이 되었습니다. 아
직 읽어 보지 않았다면, 지금부
터 읽도록 하십시오.

왜 읽어야 하는가? 만일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적 보물을
놓치게 됩니다. 그 성서 연구 보
조서적에는, 여러분이 여호와와
증인으로서 생활 문제를 직면하는
데나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는 데
도움이 될 성서 지식이 가득 들
어 있습니다. 회중 서적 연구 교
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가 되면
다 배우겠지만, 이 귀중한 지식
을 얻는 일을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책을 처음부터 끝
까지 읽어서 즉시 전체적인, 일
괄적인 내용을 살펴 보십시오.

물론, 이 책은 여호와와 증인
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당
신은 여호와와 증인들과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 책을 통독하고 싶어할 것입니
다. 이 책을 부가적으로 읽으면 하
나님의 뜻을 배우는 데 발전이
빨라질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사
람이 헌신하고 침례받기 전에 이
책을 읽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1968 11. 15
 생자로 피로용을 받는다.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지만, 그러한 경
 함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렇다. 그러한 사
 람들은 면화를 알았, 밭으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다. 지난 날에 이

한 하나님을 믿음을 명심하면, 격려가 될 것이
 다. 「네 손이 선을 세울 힘이 있거든 아담의
 반을 자에게 비유기를 아끼지 말라」(잠언
 30)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하고
 자 결심했는가? 미루지 말라, 지금 할라!

다. 이 책을 누가 적었는지 모르지만
 나만의 뜻을 세우는 데,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모든 사
 람의 행실과 고, 정해지기 전에 이
 책을 읽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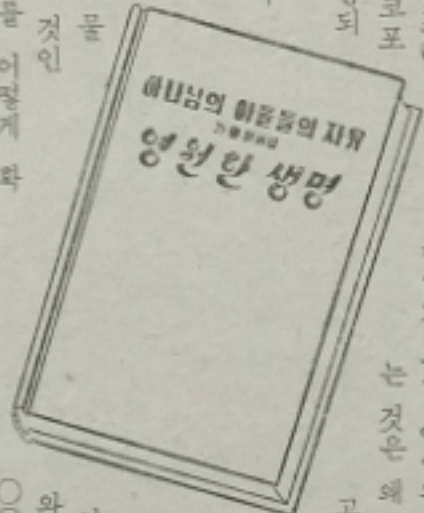
충만한 내용

이 새로운 성서 연구 보조 서적에는 풍부한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것은 「하나
 님의 회중을 다스리는 하늘의 방법」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본
 다면, 그리스도인 회중에서 「에피스코포스」
 (감독자)와 「디아코노스」(봉사의 종)는 상관
 이 없는 독립적인 용어이지만, 「프레
 슐비테로스」(원로자)는 「에피스코포
 스」나 「디아코노스」에게 다 적용되
 는 용어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주의 만찬」행방의 저니
 식사」라는 장에 대하여 여러가
 지 감사의 표현들을 듣게 되었
 습니다. 그 내용을 모든 면에
 있어서 고려적으로 다룬 것은 문
 문, 누가 기념식 표상물을 취할 것인
 가, 자신이 취할 자인가의 여부를 어떻게 하
 실히 판단할 수 있는가 등이 전 어느 책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하였을 것입니다.

이 책의 다른 장들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예수께서 말씀
 하셨을 때의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바
 음」은 어떠한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몸을 하나로써 드린다」고 하였는지, 이러한
 원칙들이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자기 나
 라의 정치 활동에 대하여 국가와의 분쟁에 대
 하여 결정을 내리는 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 등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7
 16, 로마 12—

이 새로운 성서 연구 보조 서적에서 새로
 밤하늘은 많은 훌륭한 점들 중에 베드로 전서
 3:21의 율바른 적용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 귀결의 일부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니를」(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침례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입니
 까? 그것은 「아마겔론」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또한 예수의 침례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예수의 헌신을 상징한다고 말하
 는 것은 왜 정화하지 않습니까? 그리
 고 예수께서 물에 잠겼다가
 나온 것은 죽음과 부
 활을 상징하는 것이 아
 님입니까? 이 책을 읽고
 알아 보십시오.
 그러나 더 말할 것 없이,
 이 책에서 제 1장의 도표
 와 하나님의 안식의 7,
 ○○○년에 관한 훌륭한 내
 용에 관한 설명보다 더 많은 관심을 일으킨 내
 용은 없을 것입니다. 1975년의 인류의 큰
 죄년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전례는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이 훌륭한 성서 연
 구 보조 서적을 읽을 시간을 어떻게 마련하
 나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다
 불의 인성과, 생활의 조리의 관한 문제입니
 다. 어떤 사람은 지난 여름 휴가때에 이 책을
 통독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책을 읽기 위하여 「델레의」보는 시간을 절약
 함으로써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
 니다. (에베소 5:15, 16) 그렇지 않으면, 바쁜
 중에도 어떤 시간을 더 가져오게 보내도록 제



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차나
 「버스」로 직장을 왕래하거나 일 주일에 몇번
 씩 회중 집회에 차를 타고 가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읽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가족은 매일 저녁 식사 시간에 10
 분 혹은 15분 동안 이 책을 읽을 수 있습니
 까? 이에 대해 「왕위 타워 협회」의 「엔·에
 워·노워」회장은 이러한 편지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가족과는, 금년 여름 「몬트리올」지
 역 대회에서, 「영원한 생명」 책을 저녁 식사
 시간에 읽도록 제안해 주신 점을 감사드리고
 자 합니다. 새로 알아낸 이 시간을 이용합
 으며 우리는 이 책을 2개월만에 다 읽을 수
 있었고, 그리하여 풍부한 지식과 전도 봉사
 위하여 보다 더 온전히 자격을 구비할 수 있
 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간에, 과거
 에 소홀히 하였던 협회의 다른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이 새로 발견한 시간—그렇지 않았
 더하면, 그러저럭 지나버렸음—시간—에 우리
 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주신 데 대하여 「노
 워」회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귀중합니다.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가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책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훌륭한 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비적으로만 읽어 보
 더라도 그 책을 읽는 데 보낸 시간은 잘 보낸
 시간입니다. 읽다가 새로운 점을 발견하면,
 속도를 늦추어 읽으면서 자신의 지식으로 만
 들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을 철저하
 연구한 만한 시간이 없다고 하여 먼저 읽어
 보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시간을 내
 어 그 책을 읽십시오.

역사적 연대를

알려 주는 책

우리는 이 순간 어디에 있는가. 물론 의심하지 않으며, 물론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 이르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직접 체험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시간 전에 어디 있었으며, 하루 전에, 혹은 일주일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였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나이가 얼마인지 알고 있으며, 우리의 일생 동안 발생된 큰 사건들을 상당히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면, 오랜 과거에 대하여는 어떠한가?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않은 연대나 사건들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께서 어느 해에 탄생하셨는지, 혹은 더 중요한 연대로, 그가 어느 해에 죽으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좌우간 그분은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어느 해에 「바빌로니아」사람들에게 멸망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어떤 사건들이 우리 시대에 발생되는 이유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바로 그 특별한 연대들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호르는 세월 중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7년만 있으면, 「아담」이 창조된 이래 6,000년째 되는 해가 마지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 해 1975년까지 지난다면, 우리는 그때까지 어떠한 일이 발생되리라고 기대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확실히 흥미롭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믿을 만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오래 전에 발생된 사건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커다란 중요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실들을 알아 볼 수 있습니까? 과거에 기록된 어떠한

- 1. 우리는 어떠한 역사적 사건들을 직접 알고 있습니까?
- 2. 과거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어떠한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까?

기록들을 우리는 사실로서, 참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정직한 진리 탐구자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절망적인 과제라고 생각하여, 그러한 탐구를 중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그러한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은 최고 전거로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며, 그것에 의하여 다른 모든 증거들을 판단하고 측정할 수 있는 책입니다. 다행하게도 이 역사적인 문서는 탐구자들이 얻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감받은 기록한 말씀, 성서입니다. 여호와 한 분만이 시작과 끝을 아십니다. — 이사야 46:10.

- 3. 우리에게 과거사를 알려 주기 위하여 역사를 연구하는 세속 역사가들로서 성서 기록을 비웃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빈약한 고고학적 발견물들 사이의 간격을 믿을 수 없는 전통, 황당무계한 계산, 터무니없는 억측 등으로 메웁니다. 반면에, 정직한 탐구자들은 발굴된 모든 발견물들에 의하여 화종된 비난할 여지없는 증거로서 성서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합니다. 성서들 시험해 보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고대 사건에 대한 기록이요, 철두철미 정확한 책으로서의 가치가 입증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 역사의 공백을 믿을 만한 자료로써 채우고, 별 어려움없이 「아
- 4. 우리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 5. 성서는 역사책으로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입니다. (영문참조) 건축을 시작한 그 특정한 해가 기원전 1034년으로 알려졌다면, 1034년에 만 479년(480이 아님)을 더하여 기원전 1513년 곧 애굽에서 나옴 해를 알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역시 분, 유원전 때, 「나산」원 14일이었습니다.

대홍수는 몇년 전?

16 우리는 이미 성서의 도움을 받아 기원 1968년 봄부터 소급하여 기원전 1513년 봄까지 총 3,480년간을 정확하게 측정하였습니다. 여호와와 기록한 말씀인 정확한 역사 기록을 계속 이용하여 우리는 더먼과 저본 「노아」홍수때까지 소급할 수 있습니다.

17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 중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신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때가 다름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차배년 동안은 괴롭게 하리라.」(사도 7:6, 창세 15:13) 여기서 「스데반」과 「이스라엘」민족의 세 가지 경험을 언급하였는데, 다들 땅에서의 나그네로서, 종된 백성으로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경험입니다.

18 이들 세 가지 경험이 모두 동일한 기간 계속되었다고 하지만, 서로 독립적인 경험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어느 때까지 소급해 올라갈 때, 다만 과거를 계산하는 점에만 의의 있습니까?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과거 경험을 말하면서 어떠한 사건들과 어떠한 기간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까?

으로서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종이 된 것은 나그네로서 애굽에 들어간 오랜 후, 70년 이상이 지난 후 곧 「요셉」이 죽은 지 얼마 후의 일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괴로움을 받은 400년 기간 내에 그들이 종 노릇도 하구나 그네 생활도 하였다는 의미로 말하였습니다.

19 그들이 「다른 땅에 나그네 되어...」 사백년 동안은 「지내었다고」 「스데반」이 말하였을 때, 그 민족이 애굽에 들어오기 전에는 나그네가 아니었다고 말한 것도 아니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려고 한 것도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귀절은 「이스라엘」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요셉」의 행적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처음 「바로」앞에 나갔을 때에 그들이 그 땅에 우거(寓居) 끝나 나그네로서 거하러 왔다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그 때까지 나그네가 아니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때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연세가 얼마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내 나그네질 의 세월이 일백 삼십년이니이다.」하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들어 오기 전에 그의 친 생애를 나그네로서 보낸 것뿐 아니라, 이전 그의 조상들도 나그네 생활을 보냈던 것입니다.

20 이러한 사건의 서로 독립된 경험의 파상호 순차적으로 발생되었다고 하는 결론에 반대되는 어떠한 주장을 들 수 있습니까?
21 「이스라엘」민족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부터 「나그네」였음을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환을 하였다고 그는 「바로」에게 대답하였을 다. 창세 47:4-9.

20 「이스라엘」의 괴로움받은 일해 기원전 1513년에 끝났으므로 그것은 틀림없이 1913년 즉 400년 전에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 해는 「이사」의 첫 번째 「아스마엘」의 「회동」으로 괴로움을 받은 때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때에 「이사」는 다섯 살 되었었고 그때는 「이스라엘」민족이 애굽에 들어가기 오래 전이었습니다. 창세 11:8, 9.

21 그러면 「이스라엘」민족은 애굽에서 얼마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였습니까? 출애굽기 11:40, 41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사백 삼십년이라 사백 삼십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와 군대 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느니라.」

22 「창세」인 「성서」에서는 그 400년의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거주 곧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서 주한 그들의 거주함이 사백 삼십년 간이었다. 「사마리아 오경」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소렛」 교본보다 더 오래된 이들 두 「히브리」어 교본들은 「애굽」이라는 단어에 「가나안」 「땅」이라는 말을 포함시켰습니다.

23 이 400년은 언제 끝났습니까,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24 「이스라엘」 사탄들은 애굽에서만 400년은 살았습니까? 이 점에 대하여 일부 교도 사본들은 어떻게 빛을 밝혀 줍니까?

「아브라함」의 출생까지 (112) 「셈라」의 출생까지 (114) 「요셉」의 출생까지 (118) 「야곱」의 출생까지 (120) 「이스라엘」의 출생까지 (122) 「모세」의 출생까지 (124) 「아론」의 출생까지 (126) 「미리암」의 출생까지 (128) 「하렘」의 출생까지 (130) 「다윗」의 출생까지 (132) 「솔로몬」의 출생까지 (134) 「헤르손」의 출생까지 (136) 「사울」의 출생까지 (138) 「다윗」의 출생까지 (140) 「솔로몬」의 출생까지 (142) 「헤르손」의 출생까지 (144) 「사울」의 출생까지 (146) 「다윗」의 출생까지 (148) 「솔로몬」의 출생까지 (150) 「헤르손」의 출생까지 (152) 「사울」의 출생까지 (154) 「다윗」의 출생까지 (156) 「솔로몬」의 출생까지 (158) 「헤르손」의 출생까지 (160) 「사울」의 출생까지 (162) 「다윗」의 출생까지 (164) 「솔로몬」의 출생까지 (166) 「헤르손」의 출생까지 (168) 「사울」의 출생까지 (170) 「다윗」의 출생까지 (172) 「솔로몬」의 출생까지 (174) 「헤르손」의 출생까지 (176) 「사울」의 출생까지 (178) 「다윗」의 출생까지 (180) 「솔로몬」의 출생까지 (182) 「헤르손」의 출생까지 (184) 「사울」의 출생까지 (186) 「다윗」의 출생까지 (188) 「솔로몬」의 출생까지 (190) 「헤르손」의 출생까지 (192) 「사울」의 출생까지 (194) 「다윗」의 출생까지 (196) 「솔로몬」의 출생까지 (198) 「헤르손」의 출생까지 (200)

에 「九六八을 더하면, (기원과 기원전 사이에
○년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총五、九九三
년이 되는데, 이것이 「아담」 창조 이후 금년
가을까지의 해수가 됩니다. 이것은 一九七五
년 가을 (말일 「앗서」의 숫자가 옳다면 一九
九七년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지금부터
七년 후가 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창조로
부터 六、〇〇〇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섯째 날」 끝에 창조되었다

○ 이러한 연구의 결과, 「아담」 전생
이 一九七五년 가을까지는 완전히 끝날 것이
며, 하수 고대하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그 때까지는 시작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
나 우리는 인간 존재의 일곱째 천년 기간이 안
식일과 같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와 얼마나
가깝게 일치되는가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
니다. 만일 이 두 기간이 겹쳐 있어 서로
겹쳐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사
람이 많고 대에 적절한 여호와 의 목적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일 것입니다. 이치적인 범위 내
에서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무류라고 주장하
지는 않음) 우리의 현대 계산에서는 一九七五
년 가을이 인간의 지상 존재의 六、〇〇〇년의
끝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一九七五
년이 반드시 여호와 의 일곱째 창조의 「날」의
처음 六、〇〇〇년의 끝이 된다는 의미는 아
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담」은
그가 창조된 다음에 얼마 동안 「섯째 날」
○ 一九七五년의 이전의 여호와 의 창조도 모
든, 우리는 의미 있는 대조를 위해 아 합니까?

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七、〇〇〇년 가
간 혹은 「날」이 언제 끝났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리고 「아담」이 일곱째 날」에 일
만 동안 살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아
담」이 살았던 「섯째 날」의 기간, 곧 알려지
지 않는 기간을 「아담」의 九三〇년에서 몇 필
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창조의 「날」은
「그레고리」역으로 「아담」이 창조된 해와 동일
한 해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때의 차
이는 단지 몇 주일, 혹은 몇 달이지 몇 년은
아닐 것입니다.

○ 「아담」의 창조에 관한 성서의 기사를
주의깊이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1을 편찬할 때에 홍수 전에 만들어진 「역
사」를 기록된 문헌을 참조하였습니다. 이러
한 이전 기록들의 처음 것은 창세기 1-11에
서 시작하여 11-4에서 끝났는데, 이것은
하늘들과 땅의 역사이다. (신세)라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둘째의 역사 문헌은 창세기
11-5에서 시작하여 11-32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두 개의 다른 창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문헌의 두 번째 기록은, 창세기 11-19에
서, 「지으시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원어 동
사는 미완료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창조된 후에 동물들과 새들이 창조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11-28은 그러한
의미가 아님을 알려 줍니다. 그러므로 1-장과
2-장 사이의 모순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창세
기 11-19, 20은 남자를 위한 「베핀」의 창조의
○ 창세기의 처음 두 장에서는 무엇을 알려 주고 있
유니까?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삼일 삼일 문장
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히브리」어
진행형 동사는 「지으셨고」라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더함」과 「리세」 창조.
○ 창세기에 들어 있는 이들 두 개의 창조
기사는, 내용의 처리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하와」가 「아담」 후에 창조되었다는
점에 있어서까지 모든 점에 있어서 이 두 개의
기사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하와」
가 창조되기 전에는 여섯째 창조의 날이 끝나
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된 지 정확히 얼
마 후에 「하와」가 창조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그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31) 여섯째 창조
의 날이 끝난 후에 일곱째 날이 시작했습니다.

○ 「아담」의 창조와 일곱째 날 끝 안식일
의 시작 사이의 기간은 길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짧은 기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나, 그들 가운데 자기들 위한 배필이 없
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는 장기간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동물들은 「아담」에게 복종하였
고, 평화로웠으며, 「하나」의 인도로 「아담」에
게 나왔으므로, 동물들을 추적하여 잡아올 필
○ 「아담」이 창조된 직후에 여섯째 창조의 날이 끝
나지 않았을 수 있는 시시합니까?
○ 「아담」이 창조된 날의 끝이 「아담」 창조 후
짧은 기간 후에 왔을 수 있습니까?
○ 창세기 1-31은 여섯째 날이 「아담」과 「하와」
가 범죄하기 전에 끝났을 수 있습니까?

요는 없었습니다. 「노아」가 동일한 종류의 짐승 암컷과 수컷을 방주 안에 넣는 데는 단지 7일밖에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 7:1-4) 「하와」의 창조도 「아담」이 잠자는 동안에「속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창세 2:21) 그러므로 「아담」의 창조로부터 여섯째 창조의 날의 끝까지의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선언한 말은 보면, 창조주일(週日)의 커다란 일곱째 날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하기 전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一九七五년! . . . 「리고 만 앞길!」

三三 성서 연대기는 흥미있는 연구 내용입니다. 그 연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역사 사건들을 흐르는 세월 속에서 그것들이 발생된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습니다. 「왕위 타워 협회」는 여러 해 동안,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예언적 사건들과 확실하게 일치되는 최근의 연구 결과를 사람들에게 알려 주기 위하여 노력을 해 왔습니다. 성서 연대기 내의 커다란 문제들은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은, 성서 예언의 성취 혹은 고고학적 발견 혹은 더 나은 성서 번역판이 나와 원어의 뜻은 더 명확히 전달하게 되었기 때문에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연대에 대한 사소한 것이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난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의 서나올 때에 예호와께서 일년의 시작을, 세

三四 무엇으로 인하여 성서 연대를 다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속적인 달력에서는 가을이었던 것을 종교력에 서 봄으로 변경시키셨는데, 그 당시 「유대」에서 6개월이 빠졌는가 혹은 부가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출애굽 1:1, 2.

三五 성서 예언의 성취로 그 확실성이 강화된 성서 연대에 의하면, 인간 존재의 六, 〇〇〇년의 조만간, 바로 이 세대 내에 끝나리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절대 확실합니다. (마태 24:34) 그러므로 지금은 냉담하거나 무관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 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고 하신 예수 의 말씀을 가지고 회롱할 때가 아닙니다. (마태 24:36) 그와는 반대로 지금이야말로 이 사물의 제도의 끝이 그의 왕포함 종말을 향하여 급격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의 식해야 할 때입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그날과 그때」를 아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三六 설사 一九七五년 이후의 일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조금이라도 활동적이 되지 못할 이유가 됩니까? 사도들은 심지어 지금이 정도까지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一九七五년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였던 것이라 고는 그들에게 임명된 사업의 마칠 때가 조금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전 4:7)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기록들 가운데는 경고의 소리와 진급을 의치는 부르짖음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2:20, 디모데

三七 왜 지금은 냉담하거나 무관심할 때가 아닙니까?
 三六 이 절에 있어서 사도들은 어떠한 우익한 분을 남겨 놓았습니까?

후 4:2) 그렇게 한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만일 그들이 지체하거나 빈둥거리면서, 종말이 아직도 수 천년 남았다는 생각으로 희미하게 활동하였다면, 그들은 자기 앞에 놓인 경주를 끝까지 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달렸고 부지런히 달렸고 승리할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생사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전 9:24, 디모데 후 4:7, 히브리 12:1」.

三七 현 20세기 후반기에 사는 예호와 의 충실한 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창그리스도인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꾸준한 전도 활동은 현재만 수행되는 특수한 활동이 아닙니다. 그들은 一九七五년까지만 예호와를 섬기기로 그들의 생명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행로를 걸으시고 자기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고 명하신 이래 줄곧 이 길을 달려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셨던 동일한 정신 태도를 여러분도 가지십시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열을 늦추거나 지지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온 「바벨론」에서, 그리고 이 「사단」의 사물의 제도에서, 도망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 달려오 있습니다. 그들은 一九七五년에 중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이 영광로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며, 영원부궁히 예호와를 찬양하며, 섬길 것입니다!

三七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一九七五년 사이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 후에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제1세기에 있었던 사건들의 연대를 20세기에 계산하는 방법

전 기 두 기사에서 「아담」의 창

조에 이르기까지 고대 성서 역사의 정확성이 시험되었고 또 그 진실성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예수의 지상 전도 봉사의 때와 그의 사도들의 전도 봉사의 때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어느 역사 연대도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과 국가들의 운명에 그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二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사용하는 「그레고리」의 성서 연대를 더 고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二 제1세기 사건들의 연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나, 약 400년 전에 폐지된 「율리우스」의 도 「그리스도인 회람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때를 결정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서가 중요한 사건들의 연대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서에 기록된 사건들을 현대 달력에 맞추기 전에, 때에 있어서 공통된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점은 성서의 계속 역사 두 가지가 다 증명하는 절대적으로 고정된 연대여야 합니다. 일단 이것만 결정되면 성서에 기록된 다른 역사적 사건들은 계속 달력으로 연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三 「율리우스」가 죽은 다음, 그의 양자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는 교활하게 「로마」 원로원의 세력을 억누르고, 기술적으로 공화국 체제를 제국의 형태로 변경시킨 후, 드디어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27년에 그의 위세가 상승 일로에 있을 때에 「옥타비우스」는 「아우구스투스」(아우구스도)라는 종교적 칭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또한 「율리우스」의 8월의 명칭 「세스틸리스」를 자기 이름으로 대체시키고, 1월에서 하루를 빌려와서 8월에 부가함으로써, 그의 전왕 「율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줄리아」라고 칭하게 된 7월과 동일한 날수를 갖게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는 「율리우스」의 것으로 기원 14년 그의 이름은 다시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게 된 8월 19

일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레고리」역으로는 8월 17일) 그 날에 「아우구스투스」의 양자이며, 사위인 「티베리우스」(티베로)가 그의 이어 황제가 되었습니다.

四 그러므로 「로마」 역사상 「율리우스」역으로 기원 14년 8월 19일은 논란의 여지없이 확정된 날자입니다. 그러므로 침례자 「요한」이 「요단」 강에서 그의 전도 사업을 시작한 해가 언제였느냐에 대하여는 그럴듯한 의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누가」는 그 해가 「티베로 가이사」가 뒤에 있는지 열 다섯 해였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3:1) 그 열 다섯 해는 「그레고리」역으로 기원 29년 8월 16일에 끝났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그의 활동을 시작한 것은 그 해, 분명히 봄이었습니다.

五 「누가」는 반대자들이 이 중요한 사건의 연대에 의의를 제기할까 염려하여 역사적으로 추호도 의문의 여지가 없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가」는 그 해가 「티베로 가이사」가 뒤에 있는지 열 다섯 해라고 말한 다음 그때가 다른 여섯 명의 중요한 통치자들이 재위하고 있을 당시였음을 부연하였습니다. 『본』 「본」 「다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기원 27-37),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기원 40년까지), 그 동생 「빌립」이 「이두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기원 34년까지),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누가」는 침례자 「요한」이 언제 그의 전도 사업을 시작하였는가에 대하여 어떻게 확실하게 알려 주고 있습니까?

다. (노헤미야 29-31) 그러므로 「에루살렘」은 「중진하라」는 명령이 효과를 발휘하기는 「아다사스다」 통치 제 20년 후반기 즉 기원전四五五年 「아브월」 3인 혹은 4인이었습니다. 그 때에 六九주의 예언이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노헤미야 211부터 六15.

11. 유명한 권위자들은 「아다사스다」 1세가 기원전 四七四년에 통치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아다사스다」왕 당시에 생존하였던 회람역사가 「부키디데스」는 「데미스토클레스」장군이, 「아다사스다」가 「왕이 된 조금후에」 (그의 아버지 「크세르크세스」 통치 때가 아니라) 회람에서 「아시아」로 도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기원 1세기 회람 전기 작가 「플루타크」와 기원전 1세기 「로마」 역사가 「네로스」도 이 점에 있어서 「부키디데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데미스토클레스」장군은 (소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도착하여 왕을 알현하기 전에 「바사」어를 일년 동안 공부하도록 해달라고 「아다사스다」의 허락을 청하였습니다.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한 다음 그는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원 1세기의 회람 역사가 「디오드리스 시클루스」의 기록에 의하면 「데미스토클레스」는 기원전 四七一年에 죽었습니다. 이상의 사실들과 일치하게, 「제로움」의 「유세비우스」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장군이 「아시아」에 도착한 때는 四七三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다사스다」가 四七四년에 보좌에 오른 것이 됩니다. 이것은 「아다사스다」왕 통치 제 20년의 기원전 四五五年 11. 「아다사스다」와 노헤오 보좌에 올랐을지가? 그리고 그의 통치 제 20년은 언제가 됩니까?

이거나 四五五년과 점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기타의 역사적 증거에 근거하여 유명한 학자 「에른스트 윌리엄 헝스텔버그」(一八〇二—一八六九)는 그의 저서 「구약의 그리스도론」에서 「르우엘케이트」 특이로부터 영어로 번역함, 二권 三八九면) 「아다사스다」의 제 20년은 그리스도 전 四五五년이다.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하여는 「앗서」 대주교나 다른 학자들도 의견이 일치합니다.

12. 그러므로 「에루살렘」을 중진하라는 「아다사스다」의 유명한 조서가 발표되어 적용된 해가 기원전 四五五년이라고 확정되었으므로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의 기다리는 기간인 四八三년간의 끝은 기원 二九九年 후반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로 볼 때에 예수의 침례와 기쁨부음받은 때에 대한 증거는 결코 부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13.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때가 기원 二九九年이라는 것이 확정되고 그때 그가 三〇세였으므로, 그의 탄생은 기원전 二년 가을이었다 * 이 연대 계산에 있어서도 기원과 기원전 사이 「〇」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4. 「아다사스다」의 통치에 대한 이상과 같은 사실이 예수의 침례와 대를 알아 내는 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설명하십시오.

15. (1) 예수께서 기원 二九년에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언제 탄생하셨습니까? (2)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예수께서 언제 탄생하셨다고 말하며,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합니까? (3) 「에루살렘」의 「에루살렘」을 점령한 때는 예수의 탄생 연대를 결정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는 것이 증명됩니다. 그러면, 기원전 1년 가을에 예수께서 만 한 살이 됩니다. 〇년이 없기 때문에 다음해 기원 1년 가을에는 2살이 되며, 기원 二九년 가을에는 만 三〇세가 됩니다. 어떤 연대학자들은 예수 탄생 연대를 기원전 四년이라고 하며, 심지어 기원전 六년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은 「헤롯」이 죽기 직전에 왕식이 있었다고 하는 「요세피스의」 증언에 근거하여 그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유대인의 고대 풍습 제도, 一七권 六장 四항) 그런데 그러한 왕식이 기원전 四년 三월 13일에 있었다고 계산되었으리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헤롯」이 두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을 감안하여 구주께서 그 해 이전에 탄생하셨다고 주장합니다.

16. 그러나 왕식이란 흔히 있는 일이며, 어떤 해에는 왕식이 두번이나 있는 경우도 흔하므로 그것만으로는 예수의 탄생을 기원전 四년이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것으로 「헤롯」이 「로마」인들에 의하여 왕이 된지 三七年 후에 죽었다고 하는 「요세피스의」 말이 있습니다. (고대 풍습 제도) 一七권 八장 1항) 실제로 「헤롯」은 기원전 三八年 여름에야 「에루살렘」을 점령하여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요세피스」가 「헤롯」의 통치의 시기를 계산할 때 「로마」원로원의 三년 전에 동의물한 때부터 계산하지 않고, 「헤롯」이 「에루살렘」을 점령하여 실제로 왕으로서 다스리기 시작한 때부터 계산하였다면, 「헤롯」이 죽은 해는 기원전 1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탄생의 기원전 二년 가을이라고 할 만큼 충분한

17. 「에루살렘」을 점령한 해는 기원전 36년 가을까지 3년 반이라는 기간은 기원 36년 가을까지 신 후에 계속되는 70째 주의 나머지 기간을

오로시우스는, 「골라우디오」 황제가 명을 내
 려 모든 「유대인들」로 「로마」를 떠나도록 한
 것이 50년 1월 25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들
 의 살림을 꾸리고 여행 철차를 밟아 배를 타
 고 「고린도」로 와서 다음 일년 반 동안 살게
 될 새로운 집에 정착한 후 천막 만드는 사업
 을 차리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데, 「바울」이 그 해 가을에 「고린도」에 도착
 할 때까지는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기간이 됩
 니다.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아
 굴라」라 하는 . . .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골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
 마」에서 떠나라 하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
 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 지
 라. —사도 182.

22. 성서의 역사적 정확성에 대한 또 한가
 지 점이 사도 행전 18장 22절에 나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
 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
 판자로 데리고 갔다는 기록입니다. 고고학
 자들의 「갈라우디오」 황제의 최령이 들어 있는
 글의 파편을 발견하였는데, 그 내용은 「갈리
 오」가 51년 여름부터 52년 여름까지 「아
 가야」 총독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갈리오」가
 그 사건을 기각시켜 버린 다음에 「바울」이 「디
 예리갈」 「고린도」에 머물다가 「수리아 안디옥」
 이력 모셨을 것이다. (사도 1818) 그러므로 「바
 울」이 50년 가을에 「고린도」에 도착하였다,
 23. 고고학자들의 의한 어떤 발견은, 「바울」이
 50년 가을부터 52년 봄까지 「고린도」에 머물렀
 음을 입증합니까?

일년쯤 후에 「갈리오」 앞에 끌려 갔으며, 52
 년 봄에 거기를 떠난 것이 분명합니다. 성서
 에서 전체 1년 6개월을 유하였다고 말한 바
 와 같습니다. (사도 1811) 이렇게 되면, 그
 가 기원 52년 한 여름에 「안디옥」에 도착할
 만한 시간이 됩니다.

24. 이처럼 여러 해를 전시간 선교 봉사
 보낸 다음에, 제 1세기 여행에서 겪은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견딘 다음에, 「바울」은 이곳
 「안디옥」에서 머물면서 편안하고 부유하게 은
 퇴 생활을 하였으리라고 그럴듯한 결론을 내
 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 1
 26, 27)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에게는 은퇴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
 의 모든 편지들과 그의 모든 활동은 보면, 그
 보다 더 큰 속도와 능률을 가지고 그 사업에
 매진할 진박감을 항상 볼 수 있습니다.

25. 그러므로 이 정열적인 선교인이 「안디
 옥」에서 잠깐만 머무른 다음에 다시 여행을
 떠난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거기
 「안디옥」에서 「얼마 있다가」, 아마 52년 가
 을경에 그는 세계 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번 여행
 그는 육로로 여행하면서 「갈라디아」와 「브루
 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한 후 「에베소」에 도착하여 아마 거기서 다음
 2년 반쯤 머물렀을 것입니다. (사도 1823,
 191-10) 다음, 그는 오순절 (이제 55년)
 후에 거기를 떠나 「우제모가」까지 「고린
 도」 「볼로냐」 「안طا」의 진흥 착수한 다음
 제 1회 회의를 거쳤을 것이다.
 26. 「바울」의 세계 선교 여행에서 그가 방문한 지
 역과 그 시기 등은 명확합니다.

도」로 갔다가 거기서 저술을 난 다음 이듬해
 봄 유월절 때, 「빌립보」로 되돌아 왔다고 그
 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원 56년 유
 월절 때 「에루살렘」에 도착할 만한 충분한 시간
 적 여유가 생깁니다. —고린도 전 165-8,
 사도 2013, 6, 15, 16, 21-8, 15-17.

27. 「바울」이 「에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종교적 반대자들은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로마」 군대는 그를
 비밀리에 「가이사라」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는
 의물을 바라던 음흉한 「펠릭스」 대신에 「페스
 도」가 총독으로 부임할 때까지 2년간을 거기
 에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227-33, 233-
 235, 2427) 「페스토」가 총독이 된 연대
 에 대한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서는 55
 년과 60-61년이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
 학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들 양 구단의 사이에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 제
 시된 논증은 자기편의 구단을 증명하기 보다
 는 반대편의 주장을 반증하는 편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기의 모든 사
 건들과 일치하게, 「가이사」에게 한 「바울」의
 상소가 허락되어 「바울」이 「로마」로 이송된
 때로서 58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파선을 살아 남은 후 그리고 「펠리데」
 (당파) 섬에서 저술을 저낸 후 이듬해 59년
 * The Encyclopaedia Britannica, 1946년판 3권, 528
 편, Young's Analytical Concordance to the Bible
 "Festus"라는 항목하의 342편.
 28. 「바울」이 「에루살렘」에서 구유된 후 「로마」
 에서 유월절까지 겪은 여러 가지 인본주의 인본주의
 위협은 무엇인가?

